

<p>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p>	<p>NEW 순복음Life 제34호</p>	<p>발행일 : 2019. 2.1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p>
--	--	---



무엇보다 다진순복음교회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호장로까지
설 수 있게 하셨으니 제 평생 귀한
축복과 영광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달의 간증>

-이병철 장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구원의 삶을 알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1남 5녀 중 4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제가 태어날 때 전부터 미신(무당)을 신봉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많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당을 많이 의지했었고 심지어 방학 때면 무당집에서 숙식을 하고 나오는 떡 등으로 요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구요. 제대 후 서울 큰 누님댁에서 흑염소 건강원 일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다니던 미장원 부부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건강원을 그만두고 이랜드 옷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하여 상계동에 위치한 작은 상가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출석하게 되었는데 첫 날 출석부터 새벽예배까지 참석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권면으로 바로 결혼을 위한 40일 새벽예배 작정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정기도 3일을 남겨 놓고 전도사님과 전화로 연결이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장모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셨기에 서두르셨고 저희 집안에도 외아들의 결혼을 몇 년 전부터 바라던 차였기에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서울 상계동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던 중 이듬해 부활주일 저녁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한 통의 비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날 까지도 건강하게 통화가 되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형제들과 와보니 어머니는 저녁예배 드리기 위해 급하게 걸어가시던 중에 음주운전에 뺑소니를 당하셨던 겁니다.

시각장애 아버님을 생각할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건강하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당과 왕래를 하셨으나 제가 장성하여 교회를 나간단 소리에 내가 아들을 따라야지 집안에 신앙이 두 개일 수는 없다고 하시며 바로 무당집을 끊으시고 교회를 다니셨던 만큼 아들의 사랑이 지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절차는 비통함속에서 치러졌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어머니가 가정에 제물이 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였고 주변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가게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을 서울로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 1급이셨던 아버님은 당신 평생 사셨던 고향을 떠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그 말씀에 전도사님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홀로 당진으로 내려와 아버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일은 지금 생각해도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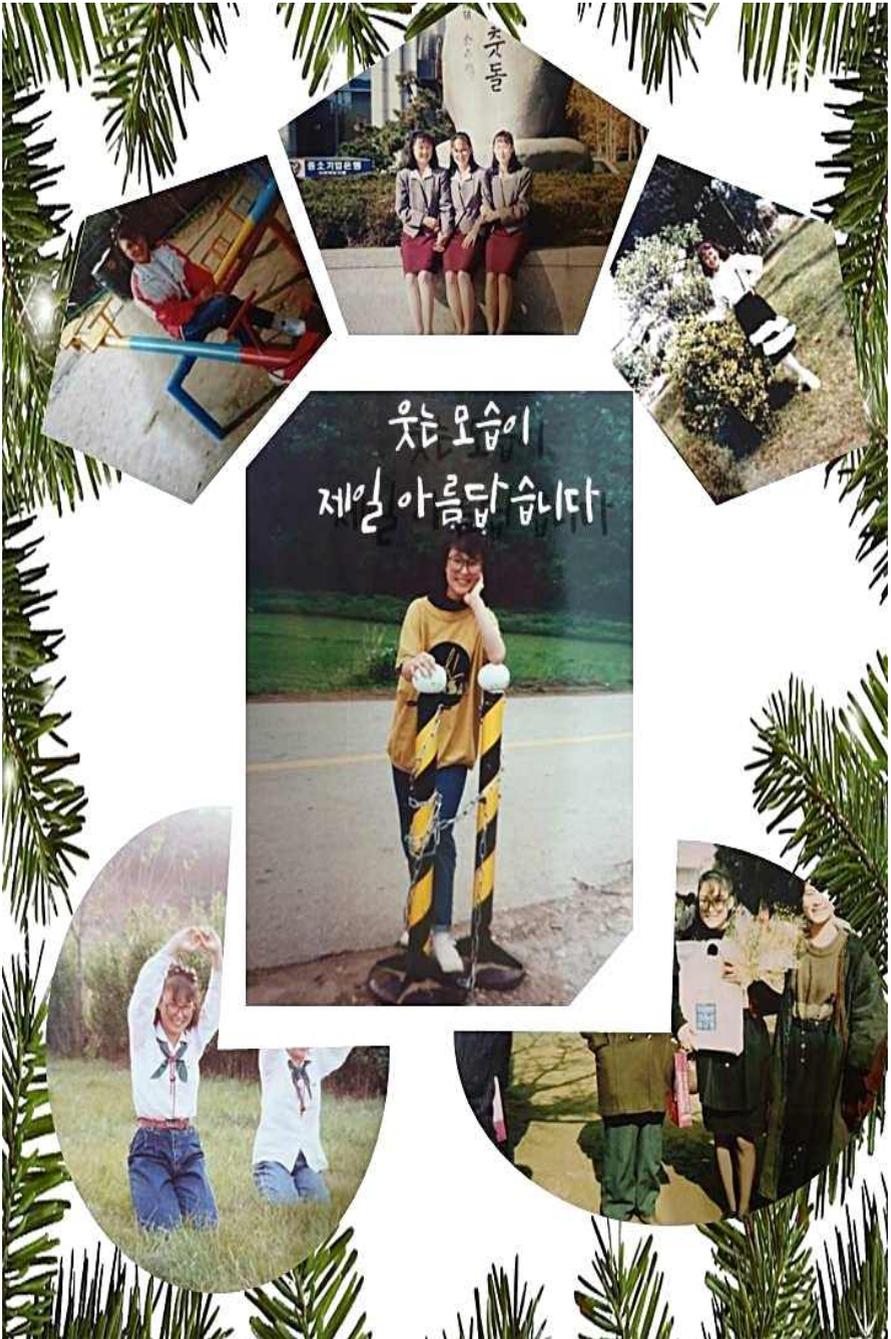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교회 나가자는 말씀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아버님은 며느리의 섬김에 감동을 받으셨고 얼마 후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첫 기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에 의해 제사의 압박을 받던 차에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지라 갓 돌 지난 성재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여주셨고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추도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누님이신 이금자 권사님 말고는 신앙이 거의 없었던 형제의 가정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추도예배 날이 형제들 간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배우자 전도사님을 통하여 이상으로 가득한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크신 사랑을 갚을 길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당진순복음교회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1호 장로까지 설 수 있게 하셨으니 제 평생 귀한 축복과 영광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목사님을 협력하고 교회를 섬길 것을 제 사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문서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 이병철 장로 -



1. 집사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해요.

초등학교 때는 옛날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사립학교였고, 내 위로 7명의 언니 오빠가 다닌 학교였지요. 제가 입학하니 선생님들이 우리 집 가족사를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선생님들과도 꽤나 친하게 잘 지냈었구요. 고등학교때는... 음~~ 그저 한 우물 파며 공부보다는 연애만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2.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텐데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엄마라는 삶의 무게는 그런 나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너무 우울했어요.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다니는 절에 따라다닐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 따라 절에 가기 바로 전에 이재욱 권사님을 통하여 저를 지금의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두 번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딱 한번! '애기 엄마,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란 말씀 듣고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3.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는 언제였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주변의 환경이 샤머니즘에 더 치우쳐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상 숭배하듯 믿었던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받을테니 벌 받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던 중 아직도 말씀이 부족하고 신앙에 연륜도 한참이나 어린 제가 구역장이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4.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어떤 삶인가요?

제 유년시절은 그리 다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적인 가장이었고 술도 잘 드셨으며 요즘 같으면 감옥에 갇힐 일(폭언, 폭행)도 서슴없이 자행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자랐겠어요? 술, 담배, 싸움 속에서 언제쯤 벗어나려나 생각하며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주저 않는 일이지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덕분에 기록과 경건함으로 살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핏줄을 만 천하에 드러내듯 더러운 내면의 죄성이 쏟아져 나오려 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 다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5. 교회에서 맡으신 사역이 많은데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힘드실 때는 어떻게 감당해 내고 계신지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밤으로 낮으로 성전에 올라 봉사하시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부럽습니다. 또 그렇게 못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사역의 어려움보다는 신앙이 좌절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당진에 오시고 첫 열매 같은 성도거든요. 처음 오셔서 처음 새신자로 등록한 성도요~ 신앙생활은 어느 교회에서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만난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른 교회에서 만날 수 없잖아요. 저를 신앙으로 반듯하리만치 이끌어주시고 가르치신 이분들의 수고를 저는 결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께 격어 내며 지금까지 가족처럼 때론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같은 제가 옆에 끝까지 꼭 붙어서 힘이 되어 드려야 한다는....어찌 생각하면 조금 인간적일수도 있는 생각을 하며 견뎌냈습니다.

6. 집사님에게는 예쁜 딸이 둘이나 있으세요~ 이 딸들이 어떠한 신앙에 삶을 살기 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예쁜 딸을 둘이나 주셨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했던 모양입니다. 내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

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거란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빈취와 희영이가 교회를 집보다 더 편하게 여기며 시도때도 없이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기도를 쉬지 않고 선한 믿음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7.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가장 잘한 건 두말 할 것 없이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듣고 싶은 대답이 이건 아닌 것 같네요 ㅋㅋㅋ
제가 23살 남편이 22살 어린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대단했는지 직장도 없는 남편 하나 믿고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두 아이에 엄마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서 키워 낸 것이 제가 가장 잘 한 일입니다.

8. 집사님의 믿음을 성경의 어떤 인물과 비교하거나 또는 닮아가고 싶나요?

저는 성경 속 믿음에 선지자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닮고 싶은 인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어찌지요? 저 혼자 할 수가 없네요. 저의 튼튼하지 못한 신앙과 부족함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남편이 긴 휴식에 들어가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며 계속 기도중입니다. 남편과 제가 목사님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 힘 있게 세워 나가게 해 달라고요~ 이루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9. 요즘은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빼 놓지 않고 꼭 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구역식구들과 우리 문서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우리 집 나씨 3인방의 신앙 회복입니다. 이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잡힌 자로 인생을 펼쳐 나가길 원합니다.

10. 실수가 별로 없는 집사님이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하~~ 제가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저는 실수 투성이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구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성격이지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제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큰 버팀목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유아무야 살았다면 중간에 신앙을 포기 했을지도 몰라요.

11. 그동안 성경은 몇 독이나 하셨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성경쓰기 붐이 일어났지요? 아마 인터넷 성경쓰기를 6독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읽은 것이 4독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읽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었고 써 내려갔어도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지요. 생각 해 보니 그저 신앙점수제도와 목사님께서 읽으라고 하시니까 눈으로만 본 것 같아요. 내용을 파악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했어야 했는데 그저 글씨 공부만 했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적게 읽더라도 천천히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문서위원회가 만들어 내고 있는 순복음라이프지가 조금 있으면 만 3년이 됩니다. 위원장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할 말 너무 많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며 3년이 되어갑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수도룩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계속 자료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간증을 맡은 전수현 권찰님은 기도하며 때로는 거절당해 서러워 울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료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성도알아가기에 이종희 집사님, 기도나 시 칭찬에 박기숙 집사님, 주일학교 소식과 이슈에 조은희 권찰님, 사진편집에 송미숙 집사님, 지금은 최하나 청년이 담당하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전체 편집에 정현미 집사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부탁하건데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순복음라이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해서 우리 위원들 울리지 마시구요~

웃으십시오!

이재동, 김남현 집사님 부부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 누구 한 사람도 한가하여 바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 주마다 짝 찬 스케줄로 분주하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내 앞만 바라보고 주변은 돌아보지 못하며 쫓기듯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듯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일년 365일 항상 바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특히 세상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바쁘게, 그리고 때로는 벅차리만큼 크게 감당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에게 귀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항상 많은 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마음 따뜻한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나 결혼하여 살다보면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요? 이분들이 딱~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동집사님과 김남현집사님 부부입니다. 베풀고 나누며 돌아보라는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며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섬김을 받은 여러 성도님들의 감사가 참으로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두 집사님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체 못하시어 물심양면으로 섬기며 헌신하시며 베푸시는 그 모습을 성도들은 본받으며 닮고 싶어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이분들의 흔적이 참 많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교회의 자랑이기에 칭찬 받기에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풍성히 채우시고 흔들고도 남아 넘치는 풍성함으로 축복받으시는 집사님 부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눅 6:38)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어느 덧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1월의 시작을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초등부에서는 1월에 "START" (시작)를 3부 순서 주제로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첫째 주는 첫 만남(O.T)를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 해온 6가지의 주제를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거나 나의 미래의 꿈,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교회출석 년 수 등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서로가 몰랐던 취향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2019년 목표 정하기를 진행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별 모양의 종이를 나누어 주고 그 종이에 자신들이 계획하는 목표를 적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성경1독을, 어떤 친구는 형제자매간에 싸우지 않기,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기 등 다양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목표는 소예배실 벽면 다니엘 유초등부 게시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 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도 함께 독려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는 '도전! 미션탈출' 이라는 주제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전지를 이용한 탁구공 옮기기와 신문을 연결해서 기차 만들기라는 두 가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 진지하게 열심히 했는지 전지는 게임이 끝나고 나니 너덜너덜해졌고

신문지기차 만들기는 끝나고 나니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다 풀어낸 듯 모두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친구들 어지러 놓은 종이들은 말끔하게 치워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넷 짜주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서 적기였습니다. 중간 중간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외우던 것도 빈 칸을 채우려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게 조금 더 섬세히 지도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발걸음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 있게 해 주시고 혹여나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로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아이들로 성장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 3: 13~14)
[숨은그림 : 보리, 쌀, 비스킷, 꽃반지, 중절모]

* 기적이란? - essay.10 -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쫓으며 방탕하고 공허한 일상에 젖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조차 없었던 시절....

무의미한 세상사에 외의를 느끼던 어느날 문득 까의 반, 타의 반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탄식처럼 엷되고 엷되고 엷던 세상의 모든 어상들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물 위를 걷고, 문둥 병자를 고치시고,
눈 먼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일들 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을 얻은 것과 새 생명을 얻어 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가로 세로 퍼즐 <2회>

			7					9
	4				8		6	
					7			
5							10	10
			1		3			
		2						
					9			
		3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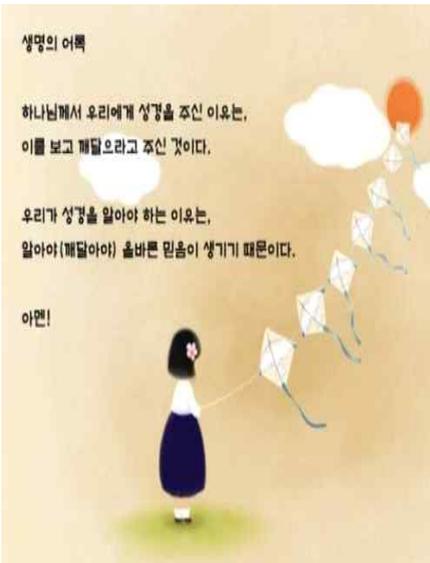
가로 문제					세로 문제				
1	갓 지파를 위한 영토 (신4:43)				1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열 두 돌을 여기에 세웠다. (수4:20)			
2	애굽 사람이며 사라의 여종 (창16:1)				2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친 선지자 (합2:4)			
3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축하도록 한 성 (출1:11)				3	셈의 아들 중의 한 사람			
4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로 바울을 버리고 여기로 갔다. (딤후4:10)				4	예수님이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여기를 통과하고 갈릴리로 갔다 (막7:31)			
5	모압 왕 발락의 부친 (민22:2)				5	일반인은 이 것을 먹지 못했으며 객이나 품꾼도 먹지 못했다. (레22:10)			
6	예루살렘에서 뽑은 일곱 집사중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이다. (행6:5-15)				6	다윗이 오벵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와 법궤를 가져올 때 비파를 탄 악사 (대상15:20)			
7	엘리멜렉의 아내이며 룻의 시어머니 (룻1:2)				7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나 사람 (눅24:18)			
8	리브가가 여기에 물을 담아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었다. (창24:180)				8	갈릴리 여기에서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곳 (요2:1)			
9	아람왕의 이름 (왕하16:5)				9	리브가의 오라버니 (창24:29)			
10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립나에서 여기로 나가서 싸웠다. (수10:31)				10	여로보암의 아들로 사마리아에서 6개월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왕하15:8)			

감사릴레이

금영미 집사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제게 당진순복음교회를 알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비롯하여 좋은 성도님들과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였던 것 열매 맺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사 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록 당진을 떠나 화성으로 이사하지만 그곳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성령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를 만나서 지금보다 더 복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떠나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을 줄 믿겠습니다. 좋은 소식 간간히 전해 드릴게요~~~

다음 릴레이 : 이영주 집사



성경 가로 세로 퍼즐
<2회> - 정답

		글					라
데	살	로	니	가		스	데
가		바		나	오	미	
십	볼					라	기
리		길	르	앗	라	못	가
		하	갈		수		라
		박			르	신	
		국	고	성			
				물	동	이	

2019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
마음속에 저~장!



대만여행!
 즐거웠느냐!
 너희가 즐거웠다면
 보내주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뿌듯 하셨겠노
 # 부모의 삶 # 자식키우는 재미



나중에는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섬기순래
 보내 드려야 한다.

귀염뽀짝



뽀시래기



보라보라해



원니 오빠들
과거사진에 비하면
이정도는 양호하다.



아름답고 더 멋진 아이들로
성장 하길 소망한다.

점프샷 전문 (김원희 자매)

☎ 포즈비법 문의 010-xxxx-xxxx-xxxx



2019 학청 연합 동계수련회 전주루어

2019 학청 연합 동계수련회 전주루어



지켜 보고 있다. 카톡 실시간



열혈청년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2020년 투어 기대됩니다 선생님들 ^^
 더욱더 순종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
 (짤내투어)

<유머>

소와 가족신

어떤 산길, 농부가 큰 소를 끌고 집에 가고 있었다. 농부의 뒤로 수상한 두 명의 남자가 보였다. 한 남자가 옆의 남자에게 말했다.

"조금 기다려 봐, 내가 저 소를 빼앗아 오겠네."

"자네가 아무리 소매치기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물건이 좀 크지 않나?"

"두고 보면 알게 돼..."

두 명의 남자는 소매치기였습니다. 한 소매치기가 농부가 가는 길 앞에 쩍쩍 앞질러 가서 새 가족신 한 짝을 그가 발견하기 쉽게 놓아두었다. 농부는 산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새 가족신 한 짝을 발견하고 손에 집어들었다.

"안타깝구나. 한 짝만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농부는 아쉬워하면서 가족신을 내버려 두고 계속 소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조금 더 걸어 모퉁이를 돌아 조금 전에 보았던 새 가족신의 나머지 한 짝이 있었다.

"이런 횡재가 있나! 깊은 산속을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아직 그 가족신이 그대로 있겠지?"

농부는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옆에 있는 나무에 소를 영성하게 묶어두는 서둘러 왔던 길을 돌아갔다. 예상대로 가족신은 그곳에 있었다. 농부는 멀쩡한 새 가족신 한 켤레가 생겼다고 좋아하며 소를 묶어둔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소는 이미 소매치기가 가져가고 없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사용어 Briefing

중국 제조 2025

최근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중국의 2025전략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통신장비, 전자자동차, 로봇,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첨단 화학제품 등이 포함되며, 기술 자급률을 70%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를 말한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집사처럼 기업의 경영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단순히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으로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마이 데이터 사업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 당사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가 돕는 서비스를 권장하는 것이다. 은행, 카드, 보험 등 각 금융사에 흩어진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핀테크 업체에 허용하며, 여러 공과금 납부 내역과 통신료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용 평가 모델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따이퐁

중국의 보따리상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대리 구매를 해 준다. 국내의 면세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해 중국에 재판매하여 20% 안팎의 마진을 남긴다하 전해진다. 주요 면세점 매출의 70%에 해당하며, 막강한 영향력으 르 행사하고 있다.

망중립성

이동통신사와 같은 통신마아 제공 업체와 여러 콘텐츠 사업자들이 유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을 부담할 경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공간



요즘 많은 화두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연을 지키는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사용을 전면 금지

하면서 다회용 컵이나 머그컵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남은 음식 포장 등의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도 사람들은 편리함을 좇아 소포장 및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고 일회용 봉지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소수들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카페에 방문할 때 자신의 텀블러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자들이 있으며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과 반찬을 사러 가면서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걸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반찬통을 가지고 가서 담아 오기도 하며 일회용 봉지 등을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가게에서는 일회용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가게가 있다고 한다. 접곡 등은 유리병에 담고 야채나 과일은 장바구니에 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자신들이 물건을 팔러 올 때도 지구에 나쁜 영향을 주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 한 농작물을 가져오고 또한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소포장이 아닌 바구니 짚 가지고 와서 하나씩 진열해 올리는 등 많은 노력으로 지구를 살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일상에서 무심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나 봉지 보다는



장바구니나 다회용품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아론(Aaron)

뜻 : 고상

B.C.1574년에 출생.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 누이는 미리암 동생은 모세 아내는 엘리세바, 아들은 나답,아비후,엘르아살,이다말등 4형제이다 ([출 6:20-23](#)). 83세에 여호와와 명령으로 그 동생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 모세와 같이 애굽왕 바로에게 10여 차례를 왕래하여 10재앙을 내리게 함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구출 하는데 성공하였다 ([출7:10,20](#), [8:8,25](#), [9:10](#))



그림 : 성막을 봉헌하는 아론

고대 바벨로니아의 두라 유로포스에 있는 3세기 유대교 회당의 성서벽화의 일부.

아론은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형제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자요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라말 등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도량이 넓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개인보다 공적인 사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하므로 모세의 대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출 사역에 모세만큼이나 공헌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연하의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섬기는데 불평하지 않았으며 협력 관계가 충성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기도를 돕는데 조력하였고 모세의 사역을 보좌하는데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은 아주 부끄러운 실수였습니다.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으로 제사직과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데 충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두 번째 실수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할 때 모세와 함께 반석을 두 번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민20:1-3) 아론은 1백23세에 세상을 떠나고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교훈과 적용>

첫째, 형으로서 자기 동생을 그 측근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섬긴 것은 의지적인 관용이요 영적인 질서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둘째, 아론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와 미리암과의 실수가 커가 여린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박봉녀 권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항상 건강한 영육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받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
기억하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매일 순간들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방황하며
때로는 나의 욕심을 앞세웠던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며
나름의 핑계를 만들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날마다의 영성 생활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우리가 몸담은 우리 교회를 더욱 힘 있게
이끌어주시며 성도들의 입술이 복음을 외치도록 담대케 인도하시
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받은 축복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이달의 교회소식

1. 기관장헌신예배 / 2월 10일 오후 7:30
2. 청년회헌신예배 / 2월 17일 오후 6:00
3. 축구부전지훈련 / 2월 18일~22일 장소 : 제주도
4. 율놀이 / 2월 24일 오후 2시

◎ 공지사항

1. 2월 생활실천표어 / 주님의 깊음에 들어가라
2. 2월 신앙서적 /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이 도우슨’ 저

◎ 이달의 교우소식

1. 첫돌잔치 / 조하연 - 2월 9일 오후6시 설악가든2층 루비홀
2. 결혼식 / 김성광&유혜진 - 2월 16일 오전11:30 다올라페니체
차윤석&윤은선 - 2월 23일 오전11:30 웨딩홀 2층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 : 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 : 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